

PA-29

새만금간척지의 근권환경 개량기술에 따른 수수 생육 특성 평가

이학성^{1*}, 오양열¹, 옥희경¹, 이광승¹, 이수환¹, 류진희¹, 정강호

Haksung Lee^{1*}, Yang Yeol Oh¹, Hee Kyoung Ock¹, Kwang Seung Lee¹, Su Hwan Lee¹, Jin Hee Ryu¹, Kang Ho Jung¹

¹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

¹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, RDA, Wanju-Gun, 55365, Republic of Korea

[서론]

간척지를 활용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수입대체가 가능한 다양한 곡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대한 농업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다(농식품부, 2019). 간척지 발작물 재배를 위해 염류토양, 높은 지하수위 등 열악한 조건에서 근권환경 개량기술에 따른 수수의 생육 및 수량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실험은 '21년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간척지 광활시험지에서 수행하였다. 근권환경 개량기술은 대조구(표준재배), 고풍(30cm), 벧짚 500kg/10a, 석고 200kg/10a, 벧짚+석고로 분류하고 수수의 시험품종은 동안메이다. 재식 거리는 60×20cm (조간×주간)이었으며, 수수의 시험 전, 후의 토양특성, 초장, 출수와 개화기간, 근권환경 개량기술 간 수량 및 생육 특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근권환경 개량기술에 따른 수수의 수량 특성은 표준 > 고풍 > 석고 > 벧짚+석고 > 벧짚 조건으로 수량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표준재배가 가장 높은 282.9kg/10a의 수량이 확보되었다. 생육 특성에서 초장, 경태, 천립중, 립수에 대하여 고풍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벧짚의 경우 가장 저조한 성장 수준을 보였다. 근권환경 개량기술은 집중 강우 시 습해 방지를 위해 적용한 기술로 수분함량을 낮추고 기상률을 높이는 기술이므로 파종기~생육 초기 수분 부족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금년도 추가실험을 통해 근권환경 개량기술에 대한 재현성을 검증코자 한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연구사업(사업번호:PJ015882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Corresponding author: E-mail, lhs0221@korea.kr Tel, +82-63-238-5472